

보성서 '대한제국 황실 차 도구' 전시 열린다



5월3일~6월2일 한국차박물관서
흥선대원군부터 덕혜옹주 차 도구

고종황제와 흥선대원군 등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 도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보성에서 열린다.

보성군은 오는 5월3일부터 6월2일까지 한국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념 특별전인 '대한제국 황실가(家)의 차 도구 전(展)' (Korean Imperial Family's Teaware)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시 개막행사는 다음달 5일 오전 11시 한국차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인 5월3일부터

5월7일까지 집중 운영해 축제 관광객 뿐만 아니라 박물관 방문객에게도 특별한 전시를 선별 계획이다.

또 고종황제의 증손인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이 참석해 대한제국 황실가의 역사와 차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등 풍부한 기획 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번 전시는 흥선대원군, 고종황제,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이방자 여사, 이준 황손 등 대한제국 황실가에서 실제 사용했던 차 도구와 서화, 조선왕실가에서 500년간 내려오던 진전다례, 별다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요 전시품은 흥선대원군 괴석묵란도, 운현궁 추사서첩, 사동궁 은다구 일

체 등 74건 120여 점으로 운현궁(흥선대원군 가문), 사동궁(의친왕 가문), 낙선재(영친왕, 덕혜옹주) 3곳에서 대역한 차문화 유물들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황실 후손들에게 면면히 전해 내려온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茶)문화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매우 유익한 전시가 될 것"이라며 "보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대 차(茶) 주산지인 보성군에 위치한 한국차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차(茶) 전문 박물관이다.

양기람 기자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아동권리교육사업 협약 체결

여수시가 지난 26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아동권리교육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시는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등 아동권리교육과 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시는 아동권리교육 대상자 모집 및 위기 가정·장애아동 희망케어 등 대상자 선정을 맡고, 세이브더칠드런은 강사·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위기아동 후원·연계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여수시는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유엔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 받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해양남시공원에서 연안정화활동
장흥군, 생활쓰레기 3톤 수거

장흥군은 지난 26일 정남진 해양남시공원 일원에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연안 정화의 날 행사에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바다환경 살리기 캠페인과 해안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연안 정화의 날은 매년 100여 개 국가에서 5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장흥군과 바다환경지킴이, 대리어촌계 등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바닷가를 통해 떠내려온 폐기물과 현장에 무단 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 약 3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달 31일에는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로 지정된 아름다운 장흥바다의 보존을 위한 '바다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해양환경보전 중요성을 전파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대학발전대의협력추진단 출범
청암대

청암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성홍)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대학 미래의 발전방향 논의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 협력을 위해 대학발전대의협력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암대학교 대학발전대의협력추진단은 김성홍 총장직무대행이 추진단장을 맡고 내부위원으로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이, 외부위원으로 김석배 기획협력위원장과 박상욱 국제교류협력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학발전대의협력추진단은 대학 종합발전계획 수립 자문, 대학과 지역간 상생발전 협력, 국외 대학과 자매결연 협약·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성홍 총장직무대행은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발족한 추진단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대학으로 발돋움 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은 지난 26일 정남진 해양남시공원 일원에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장흥군 제공

섬에서 여행과 봉사를... 섬섬여수 불런투어

10월까지 매달 50명 선정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사전 분위기를 조성코자 '섬섬여수 불런투어(Voluntour)'라는 이색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섬섬여수 불런투어(Voluntour)'는 여수의 10개(남면 금오도, 횡간도, 화정면 개도, 낭도, 사도, 상화도, 송여자도, 하화도 삼산면 거문도, 손죽도)섬에서

자원봉사(Volunteer)와여행(Tour)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매월 50명 정원으로 추진되며, 여수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 활동자를 모집했는데, 선정된 이들은 내달 1일부터 '섬섬여수 불런투어'에 나선다.

참여자 10개의 섬 중 가고 싶은 섬 1개를 선정 후 전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

으며, 자유롭게 섬 투어와 정결 활동을 마치고 결과를 증명하면 심비(1만원)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중여수시자원봉사센터장은 "불런투어 활동을 통해 섬에 대한 무한한 가치 이해와 다양한 봉사활동 영역을 확장코자 한다"며 "더불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서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 제479주년 기념 '다례제'

고흥군은 지난 28일 도화면 발포리에 위치한 충무공 일원에서 봉충회 주관으로 제479주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 다례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아 장군의 수군 초임지인 발포에서는 해마다 충무공의 위업과 정신을 기리는 다례제가 발포봉충회 주관으로 거행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봉충회원, 지역주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발포마을회관에서 충무사까지 발포 농악 시연, 조선시대 향양수군 1관 4포 관직 계승자 등의 수군 가장행렬이 이어졌다.



공영민 군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헌신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본받아 고흥

의 변화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장흥군, 7월 축제관광재단 출범
창립 전 발기인 총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26일 장흥축제관광재단 창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축제관광재단 창립을 통해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전문가 채용으로 장흥 축제와 관광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초대 이사장은 조례에 따라 김성 장흥군수가 맡았다. 발기인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이사 6인과 감사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문화관광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발기인 총회에서는 선임직 이사 및 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단 설립취지문, 정관 및 운영규정,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법인설립허가 및 법인설립등기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장흥축제관광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울산 동구 고흥사랑기부제 응원
공영민 고흥군수

공영민 고흥군수와 자매결연도시인 울산 동구 김중훈 구청장이 29일 고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공영민 군수가 자매결연·우호협력도시 고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로, 지난해는 11개 도시에 기부했으며 올해는 경기도 광주시, 안양시에 이어 세 번째이다.

고흥군과 울산 동구는 지난 2015년 자매결연 이후, 경제·관광·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날 고흥군 재난안전과 직원과 울산 동구 세무2과 직원 20명도 양 자치단체에 고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산 동구와 함께 고흥사랑기부제를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돼 울산 동구를 더 잘사는 동구로 만들 수 있는 윤택유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